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 속에

가슴 검은 토요일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종교컬럼>

이진종 목사
브릿지 선교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소아시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남서부 근방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일곱교회가 등장한다. 일곱 교회 중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단 두 교회로 나머지 교회는 각기 칭찬과 책망을 듣는다. 오늘은 이 중 에베소 교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바닷가 근처 오늘날 셀주크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당시 로마에 서는 에베소 항구를 행정 외에 무역로로 크게 활용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후 디모데가 후임으로 사역을 하였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로는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를 맡았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순회하는 사역자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돌보고 봉양하였다. 현재 지명은 셀주크로 이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남아 있다. 필자는 에베소를 비롯하여 일곱 교회는 물론 밧모섬까지 꼭 돌아보면서 사도행전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가 성경 상의 일곱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때 밀레도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을 가리켜 밀레토스 학파라고 불렀다. 특히 탈레스(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를 비롯하여 많은 철학자가 기거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에베소에는 황제숭배를 했던 신전이 남아 있다. 현재는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만이 덩그러니 쓸쓸하게 초라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여신네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기둥을 닦아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곳이 불가사의로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장소였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때 당시는 5만 명이 모였던 곳이라 하니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은장색 즉 은세공하여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로 사도 바울이 귀신이 들렸던 여종(점치)을 고쳐주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곳이 바로 에베소 극장 터이다.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다.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음란과 성적 방종은 물론 우상숭배 관련 은세공업자들이 많았다. 파리는 에펠 타워, 브라질은 이과수펠스, 빈은 베토벤이, 비텐부르크는 마틴 루터가 먹어 살린다. 캘거리 하면 역시 룩키가 떠오르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랜드마크였다. 에베소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토록 화려했던 도시와 신전들이 초토화된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였다.

에베소는 당시 최고의 인기 도시였다. 종교, 사상, 철학의 집결지였다. 아데미는 로마에서는 다이애나,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랍어로는 알라트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산을 장려하고 풍성한 미를 강조했다. 이런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는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m의 하얀 대리석 지붕, 115m의 길이, 45m의 넓이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였다. 이는 그리스가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에 해당한다. 항구 도시의 특성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고린도 도시와 다르지 않게 에베소 역시 아데미 여신 숭배로 인하여 사제들과의 무분별한 섹스 등 부도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주변이 항구도시였고 아데미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에 세워져 존립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는 꾸준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 외에 후계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이 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는 여타 지역의 교회보다 그 믿음을 잘 전수 받았다. 다만 영지주의와 그분파인 니콜라당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단들을 쫓아내고 자정작용을 통하여 교회를 잘 수호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책망을 받는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의 네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내용이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져 가고 있다. 거대한 로마도 내부 분열로 무너졌듯이 신앙공동체 역시 외부요인에 의하기보다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아예 자정작용조차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되는 일들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함께 공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지자, 가끔 교회에 나와서 한마디 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요 둘째 계명이다.

